

## 치유의 절대망대 시편

### -복음으로 여는 시편-

시편 23:1, 요한복음 10:10

정윤돈 목사님

- \* 시23: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 \* 요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답,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못 가질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마음과 생각의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한다. 그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이다. 우리는 각인하기 위해서 말씀과 복음을 듣고 또 듣는다.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판단할 일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 생겨도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생각에 맞지 않은 일들을 많이 주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다.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오는 문제다. 그러나 내 생각에 갇혀있으면 지옥처럼 살아야 한다. 오늘 시험 못 봐서 떨어진 게 아무 상관없다. 오늘 내가 감사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문제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상황과 만남을 주시면 다 된다. 우리 생각이 틀렸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조건이 좋아도 불평불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가치 없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면 계속 창세기 3장의 사탄의 통로가 된다. 우리의 기준이 전도가 되어야 한다. 전도를 위해 돈을 벌고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고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저는 고민할 시간이 없더라. 일본에 어떻게 300 지교회 세울까 생각한다. 237나라를 두고 어떻게 70나라 같이 생각 한다. 이 생각만 하는데 그렇게 움직이시는 목사님들을 만났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 고민할 것 하나도 없다. 분수에 맞게 있는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여셔서 못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단지 전도, 선교를 생각도 안 했다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 237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품어라. 생각과 마음을 틀리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 것도 못 한다. 신격호 회장은 60세에 롯데타워를 짓고 90세까지 경영 현역이었다.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니까 금방 늙어버리는 것이다. ‘나만 생각하고 복음과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

에 그렇다. 그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오직 여호와로 부족함 없는 상태가 완전히 치유된 상태이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다. 부족함 없다고 하면 보통 ‘부족함 없는 돈’을 생각하는데, 아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 병에 걸렸지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다락방하고 전도했다. 기준이 돈, 건강, 장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진 거지같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위해 살리는 말이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지옥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로 부족함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뭐가 있어서 죽한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되고 하나씩 응답받아 가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의 마음, 생각, 영혼과 삶까지 풍성하게 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절대망대를 성취하는 것이다. 본문처럼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함이지만 그리스도는 풍성케 하신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해결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된다. 요셉은 월급을 조금 더 받고 인정받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한다. 마음과 생각 먹기에 달려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세상도 좋아한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 우리 힘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러한 치유와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다.

오늘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시편은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가의 책’ 또는 ‘반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있고, 이것들은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시편의 내용이 모세 오경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한다. 시편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주는 기도문과 찬양이다. 또 시편의 특징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을 283구절 인용했는데, 이 중 160절이 시편에서 인용되었다. 시편이 단순한 시가 아닌 굉장히 복음적인 책임을 맡아준다. 시편은 인간들의 기쁨, 감사, 슬픔, 원통함, 억울함, 분노, 회개, 구원,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하늘보좌 등 인간의 삶과 영적인 모든 부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과 해답과 결론을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치유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사춘기가 없다. 성경 속 램프트들은 다 사춘기 때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다. 사춘기라고 하지만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지식과 감성에 속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야겠다. 여러분들은 사춘기 때 인생의 그림을 그려라. 사춘기 때 흑암이 서밋의 축복을 빼앗아간다.

### 1. 시편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구약시대 당시 시편은 성전과 국가의 모든 예배와 행사에서 사용된 찬양이었다. 지금 악보는 없지만 다 찬송 가사다. 수백 년 동안 행사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다.

(2)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새가족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시편을 읽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들으면서 치유도 받고, 나중에는 시편의 내용이 나의 기도가 된다.

(3) 시편은 우리들이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생각을 속시원하게 말하는 부분도 많다.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 69편 28절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사울 왕이나 적들과 싸우며 어려움을 오래 겪었는데, 시편에 어려울 때 힘들었던 심정을 기록했다. 원수들과 괴롭혔던 사람들,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한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곤 한다. 성경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 하셨다.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단지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직접 갚지 말라고 하신다.

내가 굳이 원수를 갚고 이 같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라. 오히려 우리에게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4) 시편은 실질적으로 문학적인 재능과 기법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시편에서 시를 쓴 체계적인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① 시편의 기록형식 중에서 대표적인 형식이, '답찬체'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진 시 형식을 이르는 말이다. ② 시편에서는 다양한 평행법들이 나온다. 첫째는 동의적 평행법이다. 이는 시편 15편 1절과 같은 경우이다. "야웨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자 누구오니까" 두 번째로 반의적 평행법은 첫 구절체와 둘째 구절체를 부정적으로 대립시키는 평행법을 말한다. 이는 시편 1편 6절과 같은 경우이다. "의인의 길은 야웨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종합적 평행법은 첫 구절의 내용은 원인 혹은 전제가 되고 다음 구절체에서 결과 혹은 완결을 나타내 사상을 확장시키는 경우이다. 이것은 시편 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경우이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웨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자에 대하여 5가지로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종합적 평행법이다. 미국 유니온신학교의 브릭스 교수는 여기에다 상징적 평행법, 계단적 평행법, 내성적 평행법을 추가시키기도 했다. ③ 히브리 시의 특징은 운이라 할 수 있다. 시편의 운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두운과 각운, 반복운'이다. 두운은 시가의 절을 구성하는 각 행의 처음에 자모를 같게 하여 운을 붙이는 것이고, 각운은 구절의 줄 끝에 다는 운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복운은 같은 단어나 절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다. 시편 136편은 총 26절 모두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다. 말씀을 반복할 때 묵상되고 마음속에 새겨진다. 이걸 반복하며 묵상해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음에 감동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5)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시편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이라고 했다. 교회 오는 게 처음은 힘들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교회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아무리 좋은 곳보다 좋다고 고백하기까지 성장하게 된다. 저는 교회 떠나기 싫어서 교회 장의사에서 한 달 동안 살았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지금까지 계속 응답을 주신다.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 2. 시편에 기록된 치유의 말씀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치유의 대표적인 요절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편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이 있다. 시편 101편 4절에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안에는 사악한 마음이 많다. 시기, 질투, 교만, 남 탓, 음란, 욕심, 미움, 불만, 불평, 나태, 무능, 무관심 등 이것들이 내게서 떠나야 한다. 사람들은 무능과 무관심을 나쁘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성경에는 게으른 게 악하다고, 어리석은 게 악하다고 나온다. 여러분은 유능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후대들이 어디를 가든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또한 시편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 시편 70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보좌와 천군천사를 동원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2) 시편에는 우리들의 생각을 치유하는 말씀이 있다. 시편 119편 95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겠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응답만 생각하면 싸울 필요도 없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든 주님의 증거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3) 시편에는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 있다. ①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우리들의 영혼은 치유될 수 있다. 시편 8편 3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주권까지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② 또 시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도 많이 숨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때 우리들의 영혼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시편 22편 1절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성취되었다.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과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의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5절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시편은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시편 기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영혼이 완전히 치유된 상태이다. 그리스도로 결론내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 여러분을 괴롭힌다.

(4) 시편에는 우리들의 삶을 치유하는 말씀들이 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 된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게 복,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성공자, 복된 자라고 말한다. 시편의 치유와 약속을 모두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에서는 다 함께 시편 150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다. 시편 150편에는 모든 악기를 통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찬양이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을 치유해주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정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끝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완전히 치유 받고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소중한 치유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른 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치유받고 거듭나 삶이 응답과 치유의 삶,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